

2024 카자흐스탄 진출전략

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

비즈니스 환경 분석

진출전략



I	시장평가 및 주요이슈	
1.	개요	4
가.	시장 전망	4
나.	주요 경제지표	6
2.	'24년 주요 이슈 및 전망	7
가.	도로·운송 인프라 및 지역개발 국가 프로그램 추진	7
나.	농업 육성 국가 프로그램 추진	9
다.	투자 유치 확대 정책 추진	11
II	비즈니스 환경 분석	
1.	정치/경제/산업/정책 환경	13
2.	시장 분석	21
가.	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	21
나.	구조적 취약성	23
다.	교역	23
라.	투자 진출	26
마.	프로젝트	27
3.	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	29
가.	교역	29
나.	투자	30
다.	협력 유망 분야	32
III	진출전략	
1.	PEST 분석	36
2.	SWOT 분석 및 전략 도출	37
3.	주요 이슈·산업별 진출전략	38
첨부 1.	수출 유망 품목 (상품)	46
첨부 2.	수출 유망 품목 (서비스)	50
첨부 3.	'24년도 주요 정치·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	51

Chapter



시장평가
및
주요이슈



가. 시장 전망

▣ (GDP : 성장) 2024년 GDP 성장률 5.3% 전망

- 2023년 2분기에 들어 GDP 성장률이 5.2%로 가속화되며, 1분기 예상 성장률 5.0%를 초과하였음. 이러한 성장은 소매업(8.8%), 자동차 판매(11.1%) 분야의 소비 지출 확대에 의해 견인되었음.
- 외국인 직접 투자(FDI)도 증가하며 성장에 영향을 미쳤고, 2024년에도 5.3%의 경제 성장률로 지속 성장이 전망

▣ (인플레 : 완화) 인플레이션 완화, 화폐가치 하락과 임금 인상이 위험요소

-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완화 추세에 있으며 2023년 7월의 14%에서 8월에는 13.1%로 하락
- 식품의 인플레이션은 2023년 7월의 13.5%에서 8월 12.4%로 낮아져 계속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
- 2023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대폭 완화되어 6.3%로 예상되며, 2024년에는 소폭 상승한 7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

▣ (재정 : 약화) 2023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GDP 대비 2.1%로 개선 예상

- 2023년 재정 수지 적자 비중은 GDP 대비 2.1%로 전망되며, 이는 전년도 4.3%보다 개선된 수치
- 2024년 재정 수지 적자 비중은 GDP 대비 2.6%로 다소 확대 예상되나, 카자흐스탄 정부는 2026년까지 채굴 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, 원유 및 가스 수출 증대에 따른 세입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

▣ (금융 : 완화) 인플레이션 완화되었지만, 달러화 강세로 텅게화 가치 하락 전망

- 2023년 8월 말까지 지속된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 하락에 따라 텅게화가 미국 달러 대비 약 4%~5% 절하되었고, 상승하는 공공요금, 최저 임금 증가 (+16.7%), 사회세 증가 등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리스크 존재
- 인플레이션 완화에 따라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은 8월 기준금리를 16.75%에서 16.5%로 낮춤

▣ (교역 : 증가) 러시아 재수출 수요로 인한 수입 65% 급증

- 팬데믹 이후 수입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, 이는 서방 국가의 러시아로의 직접 수입이 제한되면서 러시아로 재수출되는 상품의 급증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됨.
- 2023년 상반기 유럽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각각 전년 대비 76.8%와 52.9% 증가,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은 10.4% 감소함. 동시에, 러시아로의 수출은 38.2% 급증하였음.

나. 주요 경제지표

주요지표	단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
인구	백만 명	18.1	18.3	18.6	18.8	19.0	19.4	19.6	19.9
명목 GDP	십억 달러	162.5	174.7	176.3	168.4	192.4	207.8	215.7	272.3
1인당 명목GDP1	천달러	9,190	9,750	9,750	9,060	9,980	10,000	11,540	13,683
실질성장률	%	3.9	4.1	4.5	-2.6	4.1	4.0	3.9	5.3
실업률	%	4.9	4.9	4.8	4.9	4.9	4.8	4.5	4.6
소비자물가상승률	%	7.0	5.4	5.4	7.4	8.4	11.9	6.3	7.0
재정수지(GDP대비)	%	-1.7	-0.9	-1.2	-3.2	-2.6	-4.3	-2.1	-2.6
총수출	백만 달러	47,301	59,826	58,165	47,306	60,337	69,395	68,105	83,100
(對韓 수출)2	"	1,128	2,976	2,240	1,003	1,877	4,550	2,820 (1-7월)	-
총수입	"	30,573	34,247	40,034	37,019	39,663	44,383	43,304	60,700
(對韓 수입)2	"	567	922	2,502	4,885	766	1,570	1,285 (1-7월)	-
무역수지	백만 달러	16,728	25,579	18,131	10,286	20,674	25,012	24,802	22,400
경상수지	"	-5,092	-125	-7,196	-6,571	-5,736	7,078.7	-4,759 (상반기)	-
환율(연평균)	현지국/US\$	331.31	375.15	381.18	420.71	431.67	499.36	463.39	495.75
해외직접투자	억 달러	9	-11	-26	-21	14	16	33 (상반기)	-
외국인직접투자	억 달러	209	243	244	172	238	280	380	430

주: 2023년은 특정 기간의 수치 또는 추정치, 2024년은 전망치
 자료: EIU, IMF, 2한국무역협회, 카자흐스탄 중앙은행, Trading Economics

2

'24년 주요 이슈 및 전망

- ※ 대규모 도로, 운송 인프라 및 지역개발을 국가 프로그램으로 추진
- ※ 농공단지 조성을 통한 농업 육성 지속
- ※ 투자유치 확대 정책 추진

가. 도로·운송 인프라 및 지역개발 국가 프로그램 추진

▣ 정부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 '누를리 줄 2020-2025' 지속

- 추진 목적 : 각 지역 인프라 및 지역을 잇는 운송 인프라 구축, 효율적인 물류·운송 인프라 개발을 통한 수출 정책 실현
- 재원 및 예산 규모
 - 프로그램 재원은 중앙 및 지방정부 예산, 국제 금융기관, 민관합작투자사업(PPP), 민간 투자 통해 조달 계획 중이며 총 규모는 약 132억 달러
- 세부 추진 과제

추진 기간	분야	달성 목표
2020-2025	운송 및 창고업	1. 2019년 대비 총 부가가치 21.9% 확대
		2. 2016년 대비 노동생산성 39.9% 확대
		3. 2016년 대비 고정 투자 308% 확대
	일자리	4. 운송업 신규 일자리 55만개 창출 (정규직 4.9만개, 임시직 50만개)

- 도로, 철도 등 관련 프로젝트 수주 기회 공략 필요
 - '누를리 줄 2020-2025' 추진과 동시에 카자흐스탄은 중국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지리적 중심에 위치하여 운송 인프라 투자 집중
 -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전략적 위치로 정부 및 중국의 투자가 집중되어 운송 부문은 향후 10년간 건설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며, 후발 프로젝트 발주 예상
 - 알마티 순환도로 건설 사업에 터키 건설사와 SK에코플랜트, 한국도로공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참여하였고, 현재 완공 및 개통 완료
 - 운송 인프라 분야 후발 프로젝트 수주 기회 포착을 통한 진출전략 구상 필요

▣ 코스타나이췌에 국제 물류 허브 조성 계획

- 컨테이너 보관 공간, 물류 창고 증설 등 수출 잠재력 확대를 위한 국제 물류 허브 및 내륙항(Dry port) 건설을 코스타나이 췌에 추진
 - 곡물, 제분, 해바라기유 등의 상품을 방글라데시, 중국, 인도, 인도네시아, 베트남 등지로 수출 가능
 - 연간 7만 대 규모의 기아차 조립생산 공장이 코스타나이 췌에 새로 건설될 예정으로 컨테이너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
 - * 동 지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2024년 기준, 2023년 대비 약 560% 증가할 것으로 예측

- 향후 3년 동안 157헥타르 면적, 약 370억 텡게(약 7,957만 달러) 규모의 건설 프로젝트 시행 계획

▣ 주택 및 지역 개발 프로그램(2020-2040) 시행

- 추진 목적 : 국민의 주거 안전 및 생활개선을 위한 주택 기반 시설의 개발 (지난 ‘누를르 제르 2020-2025’ 프로그램 개편)
- 재원 및 예산 규모 : 프로그램 재원은 지방정부 예산, 민간 투자 통해 조달 계획 중이며 총 규모는 약 25억 달러
- 세부 추진 과제

추진 기간	분야	달성 목표
2020-2040	프로그램 목적	1. 주/시정부 부동산 정책 통합 시행 2. 고품질의 음용수 및 하수도 서비스 대국민 제공 3. 공동 주택 부문의 개선 및 현대화 4. 노후화 주택 점검 및 개조 5. 건축, 도시 계획 및 건설 활동 개선
	목표 지표	1. 신규 건설 주택 면적 4,560만㎡까지 확대 2. 1인당 주거 면적 비율 28.6㎡까지 확대 3. 상수도 시설 및 난방 100% 공급 4. 하수도 총 용량 920,000㎡까지 확대 5. 123만 개의 일자리 창출

▣ 'G4 City'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추진

- 카자흐스탄 정부는 알마타-코나예브 고속도로를 따라 특별경제구역을 조성하고 3만 헥타르 면적에 220만 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'G4 City'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추진 특별법 제정
 - 2048년까지 약 81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, 372억 달러의 상품과 서비스 생산, 6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

나. 농업 육성 국가 프로그램 추진

▣ '농업 개발 2021-2030' 추진

- 2021년 카자흐스탄 농업부는 국산 농산물의 시장 공급, 농장 디지털화, 혁신 장비 사용, 고품질 종자 사용, 광물질비료 사용, 수의학 강화 등을 목표로 국가 프로그램 '농업 개발 2021~2030' 채택
 - 지난 '농업 개발 2017-2021' 프로그램은 2023년 진행 상황에 맞게 세부 내용 보완 및 2030년까지로 기간 연장
- 총 투입 예산 : 총 5조 텡게(약 117.6억 달러)
- 세부 추진 과제

추진 기간	분야	달성 목표
2021-2030	목표 지표	1. 전체 농업 장비의 7%를 현대화 2. 밀 수확량 20q/ha 달성 3. 고품질 종자 공급 최대 80%까지 확대 4. 광물질비료 사용 비율 최대 40%까지 확대 5. 44,000개의 일자리 창출
	농업 생산성	6. 노동생산성 3배 증대 7. 농업 총생산 3배 증대
	프로그램 주목적	8. 카자흐스탄 국내 식품 시장 80% 확대

▣ 농업 디지털화 분야 진출 지속 가능

1) 농업 디지털화

-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20개 이상의 스마트 농장과 약 170개의 신기술이 적용된 선진 농장이 운영 중이고, 카자흐스탄 농업부 계획에 따르면, 2026년까지 최소 291개의 디지털 농장과 900개의 선진 농장이 추가로 조성될 예정
 - 향후 농업에서의 빅데이터 처리 및 인공 지능 기술 발전이 예상되며, 농장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관련 기술 및 장비 등 진출 가능할 것으로 전망
 - 주요 진출 품목은 농기계 GPS 탐색, 전자 필드 맵 및 무인 항공기 등
- 카자흐스탄 정부는 농업 디지털화를 위해 5년 이내 1억ha 규모에 500억 텡게(약 1억 달러)를 투자할 예정

2) 온실 하우스

- 전국 온실하우스의 67%가 집중되어 있는 카자흐스탄 남부 투르케스탄 주의 농업국은 온실하우스 200ha를 추가 조성할 예정
 - 2027년까지 러시아 농업기업인 'Eco Kultura'가 총 14억 달러 투자하여 500ha 규모의 카자흐스탄 최대 온실하우스를 투르케스탄 주에 건립할 예정
 - 남카자흐스탄 주에서도 온실하우스 건축과 관련된 다수의 프로젝트 진행 중
- 온실하우스 시장이 성장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비닐하우스 필름 등 관련 제품 수출 가능 전망

다. 투자유치 확대 정책 추진

▣ FDI(외국인직접투자) 유치 확대 프로그램 채택

- 지난 30년간 카자흐스탄의 외국인직접투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, 2023년 상반기 기준, 외국인 투자 총 유입액 15.2억 달러를 기록
 - 안정적인 경제 성장, 기업 및 국가의 이익 창출, 에너지 산업 현대화 정책 실현 목적
- 세부 추진 과제

추진 기간	분야	달성 목표
2022-2029	프로그램 목적	1. 최소 1,500억 달러 이상의 '외국인직접투자' 유치 (2023년 말까지 240억 달러 유치 계획)
	목표 지표	2. 2023년 말까지 최소 4개의 대규모 투자유치 계약 체결 3. 고정밀 주조 철 분야 발전 (첨단 주조가 가능한 공장 설립) 4. 50M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소 가동

- 세금 특혜, 국가 보조금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투자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 구상 중

Chapter



비즈니스
환경분석



1

정치/경제/산업/정책 환경

- ※ 정치환경 : 토카예프 대통령, 새 카자흐스탄을 위해 정치·경제적 개혁 발표
- ※ 경제환경 : 러-우 사태에 따른 러시아 자본의 유입으로 경제 성장 확대 전망

가. 정치 환경

■ 카자흐스탄 정치 동향

- 2019년 03월 19일,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전격 자진 사임 발표. 당시 상원의장이었던 토카예프가 임시 대통령직 수행
 - 토카예프 대통령은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 구성되었던 마민 총리 중심의 내각을 유지하며, 기존의 정치노선을 이어감.
- 2022년 1월 대규모 소요사태로 토카예프 대통령은 국가안보위원회의 위원장을 이어받고, 사태의 책임을 물어 총리직도 스마일로프로 교체
 -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1년 11월 누르오타당의 당수직도 물려받았지만, 소요사태 이후 누르오타당을 아مان아트당으로 개명하고, 당 의장직을 코샤노프에게 위임
- 지난 9월 16일 카자흐스탄 상하원 비정기 회의를 통해 대통령과 헌법재판소 대법관의 임기, 수도명 개칭에 관한 내용이 담긴 헌법 개정안을 채택
 - 대통령 임기는 기존 5년 중임제에서 7년 단임제로 변경
- 대통령과 의원 선출직 임기 초기화를 위해 실시한 조기 대선(2022.11.20)에서 토카예프 당선, 대통령에 취임(2022.11.26)
 - 2023년 3월 19일 98명의 하원의원 선출을 위한 총선 실시, 카자흐스탄 정치를 오랜 기간 장악했던 아مان아트당(前누르오타당)이 전국 득표율 53.9%를 기록하며, 29개 지역구 중 23곳에서 승리함.

▣ 정치 개혁 추진

- 토카예프 현 대통령은 2019년 집권 후 대통령 직속 ‘국가공공신뢰위원회’를 설립, 각 분야 44명으로 구성하여 정치 및 행정 개혁을 추진
 - * 정당의 원내 진출을 위한 최소 득표율을 기존의 7%에서 5%로 낮출 것과 ‘모든 후보자에게 반대’ 투표가 가능하도록 선거제도 수정을 제안 및 농촌지역 단위에서 직접선거 도입 추진 등
-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100대 국정과제에서 사법제도의 개혁을 주요 과제로 포함, 이를 통해 정치 개혁 및 부패 척결 등을 추진
- 2022년 11월 26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‘공정한 국가’, ‘공정 경제’, ‘정의로운 사회’ 원칙의 구체적 구현 방안도 언급
 - * 정치적 현대화 과정 지속, 국가 기금 자산 1,000억 달러로 증액, 2029년까지 최소 1,50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추진 등

▣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중립적 입장 유지

-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및 유라시아경제연합(EAEU)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하고, 미국 및 유럽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균형 잡힌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음.
 - 토카예프 대통령은 유엔 현장을 준수하면서 우크라이나 주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평화적인 방안 모색을 강조

나. 경제 환경

-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카자흐스탄 경제성장률은 4.8%를 기록했고 인프라 프로젝트, 무역 성장, 활발한 건설 활동 계획 등으로 인해 2023년 말까지 4.2~5.2% 경제성장률이 예측되며 2024년에도 동 추세가 이어져 5.3%의 경제성장률 전망
- 2022년 평균 물가상승률은 14.9%였으나, 세계 유가 상승과 러시아 동원령에 따른 이민자 급증으로 인한 주택·공공서비스 가격 인상, 2023년 1~7월 평균 물가상승률이 17.3%로 상승. 그럼에도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에너지 및 식품 가격 하락 등 외부 환경의 물가상승률 요인 약화에 따라, 2023년 8월 13.1%까지 하락, 12월까지 점차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

- 카자흐스탄의 금융시장은 2022년 러-우 사태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위협이 되기도 했지만, 러시아에서의 자금 유입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마진 확대, 러-카 국경 간 송금의 증가 등으로 카자흐스탄 은행의 2023년 영업 이익 및 자산은 증가 추세
- 카자흐스탄은 주요 수출 품목인 원유와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유가 변동은 텡게화 가치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 있고, 러-우 사태의 상황에 따라 환율 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
 - 2023년 8월 말까지 지속된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 하락에 따라 텡게화가 미국 달러 대비 약 4%~5% 절하되었고, 상승하는 공공요금, 최저 임금 증가 (+16.7%), 사회세 증가 등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리스크 존재

〈2023년 월별 평균 달러/텡게 환율〉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
462.61	451.94	449.99	451.33	446.60	448.54	445.20	451.94	467.86

자료원 : 카자흐스탄 중앙은행

〈최근 4년 간 평균 달러/텡게 환율〉

2019년		2020년		2021년		2022년	
평균 환율	전년대비증감률						
382.75	11.04%	412.95	7.89%	426.03	3.1%	460.48	8.08%

자료원 : 카자흐스탄 중앙은행

- 2023년 8월,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은 기준금리를 16.75%에서 16.5%로 일부 인하, 하반기에도 물가상승률 하락세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조정할 것으로 전망
- 러시아 재수출 수요로 인한 수입 65% 급증.
 - 팬데믹 이후 수입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, 이는 서방 국가의 러시아로의 직접 수입이 제한되면서 러시아로 재수출되는 상품의 급증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됨.
 - 2023년 상반기 유럽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각각 전년 대비 76.8%와 52.9% 증가,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은 10.4% 감소함. 동시에, 러시아로의 수출은 38.2% 급증하였음.
- 2022년 말 기준, 카자흐스탄 외국인 직접투자 총유입액은 280억 달러로 전년 동기 (238억 달러) 대비 17.7% 증가, 2012년(289억 달러)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기록

- 주요 투자국으로는 네덜란드(83억 달러), 미국(51억 달러), 스위스(28억 달러), 벨기에(16억 달러), 러시아(15억 달러), 한국(15억 달러), 중국(14억 달러), 프랑스(14억 달러) 등 기록
- 주요 투자 부문은 광산업(121억 달러), 제조업(56억 달러), 도소매업(51억 달러) 등 기록
- 2023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총유입액은 135억 달러로, 전년 동기의 119억 달러를 상회하여 연말까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, 정치적인 안정과 함께 2024년에도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.

다. 산업 환경

▣ 석유 산업

-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 산유국이며, 원유 확인매장량은 300억 배럴로 세계 12위(점유율 1.93%)
 - 카자흐스탄의 3대 유전으로 Tengiz, Kashagan, Karachaganak이 있음.
 - 2022년 기준 원유 180.6만 b/d 생산, 2023년 기준 원유 181.4만 b/d 생산(전년 대비 0.44% 증가)
- 카자흐스탄 최대 유전인 Tengiz의 확장 완료로 카자흐스탄의 원유 생산량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5월 기준, 전년 대비 2.5% 증가한 3,810만 톤의 원유를 생산
 - 세계 6위 규모인 Kashagan 유전은 안정적으로 원유를 생산하고 있으며, 2023년 상반기 기준 6.7만 b/d의 원유를 생산(전년 대비 155.4% 증가)
- 2019년 9,060만 톤으로 카자흐스탄 최대 석유 생산량을 기록한 이후, OPEC+ 감산 협정, 유전 사고 발생 등으로 2022년 생산량이 8,420만 톤까지 감소
 - OPEC+는 제33차 회의를 통해 현재의 감산 협정을 1년 연장하여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00만 b/d 감산 결정

▣ 광산업

- 카자흐스탄은 석유, 가스뿐만 아니라 상당한 광물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데, 전 세계 크롬의 30%, 망간 광석은 25%, 철광석은 10%가 매장되어 있고, 석탄 매장량은 전 세계 7위 규모임.
 - 우라늄은 전 세계 생산량 1위, 크롬은 세계 3위, 텅스텐은 4위, 구리는 11위

- 러시아-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의 대러 제재 이후, 카자흐스탄은 EU 시장에 러시아의 석탄 공급을 대체하게 되었고, 2023년 7월 기준 전체 수출액의 17.1%가 광물 자원이고, 전체 GDP에서 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4.3%
- 정부는 광산업 현대화, 광산 개발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, 네덜란드를 필두로 한 영국, 미국, 프랑스 등의 유럽 자본이 이미 진출해 있음. 최근에는 중국계 회사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음.
- 광산업의 경우 상품가격 및 생산성에 있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나, 2022년 7월부터 지속적인 가격 하락세를 보임.
 - 2023년 8월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주요 원자재의 가격은 전월 대비 구리는 1.4%, 철광석 2.8%, 우라늄 4.2%, 은 1.3% 상승

■ 농업

- 카자흐스탄은 세계 10대 곡물 수출국 중 하나로 70개국 이상에 곡물 수출 중
- 카자흐스탄 통계청에 따르면, 2022년 농업 총생산량은 지난 10년 중 가장 많은 수확량을 기록, 2023년 1~5월 농업 생산량은 금액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9.1% 증가한 9.5조 텡게(약 204억 달러)를 기록
 - 2023년 상반기 기준, 전년 동기 대비 우유(2.9%), 곡물(13.8%), 축산물(4.5%)은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, 달걀(△1.8%)의 경우 생산량이 감소
 - 카자흐스탄 농업부는 농산물 29종에 대한 국내 생산 확대 추진 중
- 카자흐스탄 농업부는 ‘농업 개발 2021~2030’ 국가 프로그램을 통해 약 5조 텡게(약 107.5억 달러)를 투입하여 농업 부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 조성 중
- 농업부 발표에 따르면, 2023년 말까지 536억 텡게(약 1.1억 달러) 규모의 291개 프로젝트, 2026년까지 2.6조 텡게(약 55.3억 달러) 규모의 총 700개 프로젝트 실행 예정
 - 65개 낙농장 및 26개 농수산물 보관창고 건설 등

■ 건설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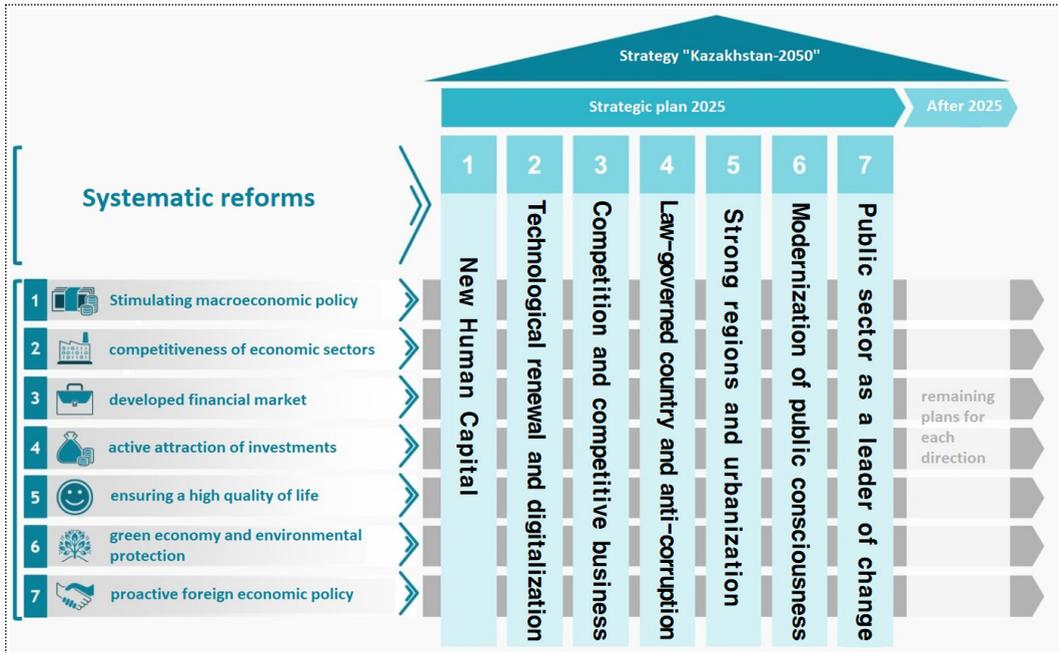
- 건설업은 카자흐스탄 내 가장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 규모는 2023년 1-6월 기준 GDP의 5%를 차지
 - 신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및 주거용 건물 건축 등으로 카자흐스탄 건설 산업 규모는 2023년 상반기 기준, 전년 동기 대비 약 12.3% 상승
 - 2023년 1-6월 추진된 주거용(13.9%)과 비주거용(21.9%) 건축이 큰 비중을 차지
- ‘주택 및 지역 개발 2020~2040’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가 주도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, 카자흐스탄 정부는 주택시장 활성화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도 지원 중
- 카자흐스탄의 건축자재 수입의존도는 50%를 상회하며, 현지에서는 시멘트, 벽돌, 지붕 기자재 등 상대적으로 단순한 자재만 생산
 - 현지 생산 자재 또한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다수를 수입에 의존
 - 현지 수요가 많은 건축자재는 유리, PVC 파이프, 철근, 세라믹 타일, 단열재, 벽지, 벽돌, 지붕 기자재이고, 대부분 중국, 러시아, 터키 등에서 수입

라. 정책·규제 환경

■ 카자흐스탄-2050 전략

- 국제 경제질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97년 제안된 2030 전략을 수정하여 ‘카자흐스탄 2050 전략’을 새롭게 제시
 - 카자흐스탄이 2050년까지 세계 30대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과 전략을 제시

〈카자흐스탄-2050 전략 구성도〉



자료원 : 카자흐스탄 대통령실 홈페이지

• 주요 내용

- (경제) ① 경제실용주의, ② 신 인사 정책, ③ 거시경제정책 현대화, ④ 인프라 개발, ⑤ 국가 자산 관리 체계의 현대화, ⑥ 새로운 천연자원 관계 시스템, ⑦ 산업화 다음 단계를 준비, ⑧ 농업 현대화, ⑨ 수자원 정책 개발 등 추구
- (기업지원) 기업 활동에 대한 전폭 지지 ① 중소기업 발전, ② 새로운 민관 협력 모델인 Strong business - strong state, ③ 대규모 민영화 및 정부 간섭 축소 등 반영
- (복지) 사회보장과 개인 책임 원칙 추구, (지식기반사회) 지식과 전문기술 기반 사회 구축, (민주주의) 국가 위상 강화와 민주주의 발전 기본 추구, (외교) 국제 변화에 대응하는 대외정치 추구
- ‘카자흐스탄-2050’ 전략하에 카자흐 정부는 인프라 개발계획인 ‘누를리 졸’과 ‘5대 제도개혁 및 100대 국정과제’의 원활한 추진으로 국가 안정화 및 규제 완화 도모

▣ 카자흐스탄 수출 전략

- 상품 및 서비스 판매 및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국가 수출 전략을 제시
 - 비자원 부문 수출증대를 위해 동 전략은 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해결책을 제공할 예정

- 특히, 수출 지원 및 촉진을 위한 'Single Window' 원칙에 따라, 수출에 관한 모든 절차는 국영기업인 'Kazakh Export'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입법 지원 예정
 - * 'Single Window' 시행을 통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품질 개선, 서비스 시간 단축,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의 효과가 있어 비용 절감 및 시간 단축이 가능
- 유망 분야, 상품, 서비스에 대한 육성을 위해 'export basket'을 선정했고, 운송, 관광, 의료, 교육, 우주, 금융, 비즈니스 등 7개의 산업과 116개의 제품을 포함

■ 카자흐스탄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

- 기술 현대화 및 노동생산성 향상, 민간 부문의 역할 증대를 위해 국가 디지털화 전략의 정책 방향별로 주요 이행과제를 제시
 - (경제의 디지털화) 농업, 광업, 교통물류, 에너지 산업, 제조업 등 산업 분야별 자동화 및 Paperless 프로세스 도입, 스마트 시티 개발, 전자상거래 활성화, 전자지불 시스템 개발 등
 - (디지털 실크로드) 비도시지역 인터넷 보급, 사이버 보안 인력 양성, 광대역 인터넷 확대, 스마트 시티 도입 등
 - (디지털 정부) 정부 포털 서비스 개선, 정보 공개 확대, 국가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
 - (혁신생태계 조성) IT 스타트업 지원, 수출지향적 IT 기업 육성, 경제특구 내 혁신 기술 파크 개발 등
- 동 전략 이행을 위해 정부 예산 1,410억 텡게(약 3억 달러) 및 준정부 부문 1,690억 텡게를 투입하고, 670억 텡게의 민간 투자를 유치할 예정

■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발표

- 2020년 7월 카자흐스탄 정부는 '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행동 계획 2021-2030'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, 206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의지 천명
 - 2030년까지 원년(1990년)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자체 감축 목표를 15%로 설정
-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일환으로 카자흐스탄 내 노후화된 난방 인프라 개선을 위해 신재생 기반의 에너지 생산 및 고효율 발전을 위한 발전소 현대화 프로젝트 등 추진 예정

2

시장 분석

- ※ 중앙아시아의 맹주, 에너지 부국으로서 시장가치 다대
 -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경제규모가 가장 크며, 원유 매장량 세계 12위국
- ※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상위 10대 수입대상국
 - 우리기업의 진출 시장으로서 높은 가능성 보유
- ※ 정상 순방 계기 한-카자흐 간 체결한 경제협력 프로젝트 지속 관리

가.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

▣ 중앙아시아의 맹주, 카자흐스탄

- 세계 9위 영토 대국
 - 카자흐스탄은 한반도 면적의 12배, 한국의 27배에 달하는 영토를 보유
 - 1,994만 명의 비교적 적은 인구에 비해 풍부한 농지 및 천연자원 보유
 - 지리적으로 중앙아시아 중심에 위치하며,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철도노선이 카자흐스탄 영토를 통과하고, 러시아-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물류 허브로 급부상
- 유라시아경제연합(EAEU) 회원국
 - 2015년 1월 1일 출범한 EAEU는 약 1억 8,540만 명의 인구(세계 8위)와 1조 9,882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 규모를 가진 경제연합(석유 세계 2위(14.5%), 가스 세계 1위(20.3%))
-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가장 큰 경제 규모
 - 카자흐스탄 GDP 규모는 2022년 기준 2,456억 달러로 중앙아시아 내 규모가 가장 크며, EAEU 국가 중에서도 러시아 다음 순위임.
- 2050년까지 세계 30대 선진국 진입 목표
 - 변화된 국제정세에 맞추어 카자흐스탄의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과 전략을 세우기 위해 기존의 2030 전략을 수정하여 '카자흐스탄 2050' 전략을 새롭게 제시
 - 경제, 정치, 사회,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목표가 설정되어 있음.

▣ 에너지 부국

- 카자흐스탄의 핵심 산업은 에너지
 - 원유 매장량 세계 12위 국가로 2023년 1~7월 원유 수출은 전체 수출의 54.6% 차지
 - 2023년 상반기 기준, 법인 소득세(CIT) 및 광물 추출세(MET) 수입 목표에 도달하지 않아 최근 2년간 에너지 세수가 16% 감소
 - 카자흐스탄은 최대 수출 품목인 원유를 비롯하여 다양한 천연자원을 보유

〈주요 자원별 확인매장량 및 순위〉

자원	확인 매장량	세계 순위
가스(조 m³)	2.3	25위
석탄(억 톤)	256	10위
우라늄(천 톤)	842	2위
크롬(천 톤)	230	1위
철광석(백만 톤)	340	11위
아연(백만톤)	13	6위

자료원 : 카자흐스탄 통계청, 주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

- 에너지 산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국부펀드인 국가석유기금(National Fund)을 운영
 - 카자흐스탄 원유·가스 기업으로부터의 걷는 세수를 기금으로 편입
 - 2022년 상반기 기준, 펀드의 총 자산은 약 602억 달러 수준
 - 경제 위기 및 재정적자 발생 시 국가석유기금(National Fund)을 통해 재원 조달
- 2023년 1분기 기준, 카자흐스탄 외국인 직접투자는 자원 관련 분야에 51% 이상 집중

〈최근 6년간 에너지 및 제조업 분야 외국인 직접 투자액 비교〉

(단위 : 백만\$)

분야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 1Q
에너지	13,621(56%)	13,681(56%)	8,214(48%)	9,705(41%)	12,147(43.4%)	3,532(36.9%)
제조업	3,419(14%)	3,460(14%)	3,164(18.5%)	5,242(22%)	5,605(20%)	1,639(8.5%)
전체 투자액	24,271 (100%)	24,422 (100%)	17,085 (100%)	23,658 (100%)	28,012 (100%)	7,618 (100%)

자료원 : 카자흐스탄 중앙은행

나. 구조적 취약성

▣ 에너지 부문에 대한 경제의 높은 의존도

- 원유 및 가스 산업이 GDP의 35%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, 재정의 44%를 점유
 - 2023년 7월 기준, 원유 및 가스 수출은 전체 수출의 59.2%의 비중을 차지
 - 2023년 상반기 기준 제조업은 GDP의 13.1%, 수출의 33.5%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, 정부는 제조업 생산 비중을 2025년까지 2020년 대비 1.5배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 추진 중

▣ 취약한 국제물류 환경

- 유라시아 지역 내륙에 위치한 카자흐스탄은 2023년 국제물류지수(LPI) 순위에서 전체 평가대상 139개국 가운데 84위를 기록
 - 정부의 물류 행정도 매우 취약하여 수출입 통관 서류 준비 및 비용, 시간 등에서 국제 경쟁력이 매우 낮음.

다. 교역

▣ 카자흐스탄 수출입 동향

- (전체 교역액) 2023년 1~7월 총 교역액은 794.8억 달러로, 전년 동기 대비 5.7% 증가
 - 2022년도 총교역액은 전년 대비 33.2% 증가한 1,355억 달러를 기록
 - 러-우 사태 이후 최대 교역국인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한 반면, 유럽과 중국, 한국 등으로부터의 수입은 급증하였고, 러시아로의 수출도 급증
- (수출) 2023년 1~7월 수출액은 44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.7% 감소
 - 원유·가스는 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출품으로 전체 수출액의 59.2% 차지
 - * 원유·가스를 포함한 전체 자원의 수출 비중은 66.5%
 - 2022년 기준, 수출 대상국 상위 5개국(이탈리아, 중국, 러시아, 네덜란드, 터키)이 전체 수출액의 54.5%를 차지. 한국은 수출 대상국 6위

- (수입) 2023년 1-7월 수입액은 34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3% 증가
 - 2022년 기준 대외수입은 러시아(34.7%)와 중국(21.9%)이 전체 수입액의 56.6%를 점유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. 한국(3.1%)은 수입 대상국 6위

▣ 카자흐스탄 주요 경쟁국 수출입 동향

1) 수출

- 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이탈리아, 중국, 러시아, 네덜란드, 터키
 - 주요 수출 품목은 원유, 가스, 우라늄 등 천연자원

〈2023년 7월 기준, 카자흐스탄 수출 대상국 상위 10개국〉

(단위: 천 달러, %)

	국가명	수출액	비중(%)	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
1	이탈리아	8,298,213	18.5	△4.2
2	중국	7,628,989	17.0	△2.8
3	러시아	5,804,447	13.0	△33.6
4	한국	2,819,857	6.3	4.5
5	네덜란드	2,621,236	5.9	△18.3
6	터키	2,376,065	5.3	△14.6
7	우즈베키스탄	1,821,302	4.1	△2.7
8	프랑스	1,683,200	3.8	△2.27
9	루마니아	1,531,699	3.4	33.2
10	싱가포르	1,012,405	2.3	△2.4

자료원 : 카자흐스탄 통계청

2) 수입

- 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입 대상국은 러시아, 중국, 독일, 미국, 한국, 터키
 - 상위 2개국인 러시아, 중국의 점유율이 전체 수입 규모의 51.9%를 차지
 - 주요 수입품목은 자동차, 무선전화기, 석유화학제품, 자동차부품, 식품, 철금속 등
 - (러시아) EAEU 회원국으로 무관세협약, 러시아어권, 동일 인증제도 등으로 유리. 기계장비, 자동차, 철 금속 제품, 석유화학제품, 식품 등이 주요 수입품
 - (중국) 저렴한 가격 및 지리적 이점에 따른 낮은 물류 비용으로 경쟁력 확보. 주요

수입품은 플라스틱 제품, 보일러, 전기 기계, 자동차 부품, 철금속제품 등

〈2023년 7월 기준 카자흐스탄 수입대상국 상위 10개국〉

(단위: 천 달러, %)

	국가명	수입액	비중(%)	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(%)
1	러시아	9,392,127	27.0	△6.5
2	중국	8,642,529	24.9	53
3	독일	1,745,201	5.0	86.4
4	미국	1,601,205	4.6	103
5	한국	1,300,375	3.7	52.5
6	터키	1,186,851	3.4	59
7	일본	919,168	2.6	73
8	프랑스	817,690	2.4	98.8
9	이탈리아	743,115	2.1	47.3
10	우즈베키스탄	721,615	2.1	6.1

자료원 : 카자흐스탄 통계청

▣ 수출입 규제

- 수출/수입에 관한 규정은 2013년에 제정된 EAEU의 기술 규정(Technical Regulation of the Customs Union)을 따르고 있음.
 - 대부분의 품목은 첫 수출 시 필수로 제품 등록(State registration)이 필요
 - 카자흐스탄 내 제품 등록 및 필요 서류 : 제품 제조에 관한 문서, 제품 사용에 관한 문서, 품질 관련 문서, 제품 라벨에 관한 문서, 국가 기관에서 발급된 안전에 관한 문서 등
- 카자흐스탄의 수입 통관에 적용되는 세금은 관세, 통관 비용, 부가가치세, 소비세가 있음. 수입 관세는 HS코드에 따라 0~20%까지 부과될 수 있고, 제품별 HS코드 분류 및 관세율 확인은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
 - *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홈페이지 : www.eurasiancommission.org

라. 투자 진출

- 2023년 1분기 기준, 카자흐스탄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76억 달러로 전년 동기(69억 달러) 대비 10% 증가
 - 카자흐스탄은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에 비해 경제와 인구 규모가 크고 광물, 석유, 가스 등의 천연자원과 방대한 경작지를 보유하여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유리한 요인을 갖추고 있음.
 - 제조업 투자액은 전년 동기(13.3억 달러) 대비 16.5% 증가(15.5억 달러)
 - 산업별로는 광산업이 2023년 1분기 35억 달러로 전체 투자의 46%를 차지
 - * (제조업) 15.5억 달러(20%), (건설업) 1.9억 달러(2.5%), 원유 및 천연가스 27.6억 달러(36%) 등
- 카자흐스탄의 주요 투자국은 네덜란드, 미국, 스위스, 러시아, 중국, 한국 등
 - (러시아) 카자흐스탄 4대 투자국으로 2023년 8월 기준 18,381개의 합작 기업이 활동 중이며 지리적으로 가깝고 러시아어가 통용되는 이점을 활용, 다양한 산업에 진출. 대러 제재 이후 많은 러시아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으로 이전
 - (네덜란드) Shell, CB&I, Witteveen&Bos, Van Oord, Philips 등 우수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, 2023년 8월 기준 519개의 합작 기업이 활동 중임. 카자흐스탄 최대투자국으로 광산업, 제조업, 도소매 판매업에 투자 집중
 - (미국) 2023년 8월 기준, 총 471개의 합작 기업이 등록되어 있으며, 주요 투자 분야는 광산업, 부동산 및 임대업, 금융 및 보험 등임.
 - (중국) 대부분의 투자는 원유·가스 생산 및 운송 분야, 농업, 광산업, 건설업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, 2023년 8월 기준 약 2,145개의 합작기업이 활동 중임. SINOTEC, CITIC, China Investment Corp., CNPC, Industrial & Commercial Bank of China, Bank of China 등이 대표적

〈2023년 1분기 기준, 카자흐스탄 7대 투자국〉

(단위 : 백만 달러, %)

연번	국가	투자금액		증감률
		2022년	2023년	
1	네덜란드	1,904.8	1,563.1	△17.9%
2	미국	1,881.3	1,447.7	△23.07%
3	스위스	663.1	915.0	37.99%
4	러시아	498.5	673.1	35.02%
5	중국	310.1	293.6	△5.32%
6	한국	259.3	498.1	92.09%
7	벨기에	253.9	252.9	△0.39%

자료원 : 카자흐스탄 중앙은행

-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투자 촉진 전략 개발 및 투자 인센티브를 시행
 - 13개의 특별 경제 구역(SEZ)은 이 구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소득세, 토지세, 재산세, 부가가치세 및 수입에 대한 관세를 면제

카자흐스탄의 13개 경제 특별 구역	카자흐스탄 경제 특별 구역의 혜택
1. 아스타나-새로운 도시 (2027년 만기)	1. 법인세 100% 면제 (특정 조건 만족 시)
2. 아스타나-테크노폴리스 (2042년 12월 만기)	2. 부가가치세 0% (경제특구 건설 목적으로 소비된 제품 또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규정한 제품에 한함)
3. 악타우 항구 (2028년 1월 만기)	3. 토지세와 토지 사용에 대한 비용 0%
4. 남부 카자흐스탄의 사이람(Sairam) 구역에 있는 온두스틱 면화 센터 (2030년 7월 만기)	4. 재산세 0%
5. 아트라우 석유화학 파크 (2032년 12월 만기)	5. 사회세 0% (혁신 기술 파크에 한함)
6. 기술 혁신 파크 (2028년 12월 만기)	6. 10년간의 무료 토지 사용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 간소화
7. 카라간다 지역의 Saryarka - 야금, 중공업 (2036년 12월 만기)	7. 관세 및 세금 0%
8. 알마티 호르고스 Eastern Gate (2035년 만기)	8. 장비 등 수입 세금 0%(특별 투자 계약 체결 시)
9. 파블로다르 - 석유화학, 야금 (2036년 12월 만기)	
10. 타라즈 Chemical Park (2037년 1월 만기)	
11. 알마티 호르고스 국제 센터 - 무역 (2041년 만기)	
12. 투르키스탄 Turkistan (2043년 12월 만기)	
13. 북부카자흐스탄 페트로파블 Qyzyljar(2044년 만기)	

- 그러나 정치적 리스크와 외국인의 토지 및 사업 소유권에 대한 제한, 국영기업의 높은 비중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상당한 장벽으로 존재
 - 외국인 투자가 금지된 경제 분야는 없으나 지분 소유 범위는 제한
 - * 외국 투자자의 지분 소유 한도 : 연료 20%, 항공 운송 서비스 49%, 통신 서비스 49% 등

마. 프로젝트

▣ 프로젝트 시장 특성

- 주거 프로젝트인 Nurly Zher, 국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인 Nurly Zhol 등 국가 주도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 중
 - 2023년 1분기 기준, 건설 산업에 대한 투자는 약 1.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.7% 증가
 - 양호한 거시경제 펀더멘털, 중국의 지속적 투자, 정부의 인프라 개발 집중 정책으로 장기적으로는 성장세 유지 전망
 - * 2021-2029년 건설업 연평균 성장률 5.4% 전망(Fitch)

- ADB, EBRD, IsDB 등의 국제 금융기관 펀딩은 향후 카자흐스탄의 건설 및 인프라 산업 성장에 필수적 요인
 - EBRD, IDB, EDB는 카자흐스탄 최대 PPP 프로젝트인 알마티 순환도로 건설 사업에 5.8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
 - IsDB는 인프라 건설, 농업 분야 등 69개의 프로젝트 진행 중이며, 약 17억 달러 규모
 - 2023년 8월 기준, EBRD는 11개 분야의 총 104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, 약 560만 달러 규모

- 카자흐스탄은 중국 ‘일대일로’ 이니셔티브의 지리적 중심에 위치함으로써 운송 인프라 투자에 집중
 -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전략적 위치로 정부 및 중국의 운송 분야 집중 투자, 운송 부문은 향후 10년간 건설시장 성장 견인 전망
 - * 2021-2029년 운송업 연평균 성장률 7.3% 전망
 - 특히 철도는 ‘일대일로’ 관련 인프라 투자의 주축을 형성

- 국가 경제 및 사회 인프라 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PPP 활용
 - 정부의 PPP 활용 강조에 따라 PPP 관련 법안이 채택된 2015년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1,055건, 약 37.7억 달러 규모의 PPP 계약 체결
 - 단, 이 중 99%(1,042건)는 지방정부가 진행하는 소규모 프로젝트로 중앙정부 차원의 대규모 프로젝트 체결 건수는 1%(13개) 수준

- 자금조달은 카자흐스탄 PPP 환경 조성의 주요 과제
 - 카자흐스탄 국내 은행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의지 및 능력 부족
 - 국제 투자자들은 유가 및 러시아 경제상황 변동에 취약한 텅게화 위험성 회피
 - 국제 금융기관을 통한 PPP 자금조달을 위해 통화 위험성을 극복할 수 있는 장치 마련 필요

3

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의제

- ※ EU,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한 선진 시장
- ※ 가치 지향의 소비자가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시장
- ※ 에너지 가격 안정세로 '23년 EU 대외 무역 적자폭 완화세이나 EU FDI 투자액은 '19년 이후 저조한 흐름 지속 중
- ※ '23.8월 누계 기준 對EU 수출액은 전년 대비 3.4% 증가한 470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경기 둔화에도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선전

가. 교역

▣ 한국의 對카자흐스탄 수출입 동향

- 2023년 8월 기준, 카자흐스탄은 우리나라의 37위 수출 대상국이자 29위 수입 대상국
 - 2023년 8월 누계 기준 수출액 13.7억 달러(전년 동기 대비 46% 증가)
 - 2023년 8월 누계 기준 수입액 29.2억 달러(전년 동기 대비 16.2% 감소)
- 한-카 교역액은 1992년 1,100만 달러로 시작, 2022년 65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 기록
 - (2023년 주요 수출 품목) 승용차, 자동차부품, 화장품, 건설 중장비, 금속절삭가공 기계, 윤활유, 타이어, 보일러, 의료용기기, 의약품, 공기조절기 등
 - (2023년 주요 수입품목) 원유, 우라늄, 합금철, 금속광물, 동물성 한약재 등
- 러-우 사태로 인한 대체 공급선 전환, 현지 자동차 조립생산 확대, 중고자동차 수요 급증 등으로 2022년부터 양국 교역규모 크게 확대
 - 2022년 8월 기준, 교역액은 42.9억 달러로 전년 동기(44.2억 달러) 대비 2.9% 감소

〈최근 5년간 한국의 對카자흐스탄 수출입 동향〉

(단위 : 천 달러, %)

구 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
수 출	797,818 (49.3)	2,657,131 (233.0)	1,997,529 (△24.8)	769,065 (△61.5)	1,655,098 (115.2)
수 입	1,362,109 (36.4)	1,561,644 (14.6)	1,090,196 (△30.2)	2,442,299 (124)	4,869,471 (99.4)
무역수지	-564,291 (△21.2)	1,095,487 (294)	907,333 (△17.2)	-1,673,234 (△284.4)	-3,214,373 (△92.1)
교역규모	2,159,927 (41.0)	4,218,775 (95.3)	3,087,725 (△26.8)	3,211,364 (4)	6,524,569 (103.2)

주 : 괄호 내 수치는 전년 대비 증감률
 자료원 : 한국무역협회

나. 투자

▣ 한국의 對카자흐스탄 투자 동향

- 2018~2019년 한-카 양국 관계 강화에 힘입어 對카자흐스탄 투자액 증가
 - 한국의 對카자흐스탄 투자액은 2008년 역대 최대치인 8.2억 달러 기록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7년 700만 달러까지 하락
 - 그러나 이듬해인 2018년 1,500만 달러로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며, 2019년은 양국 관계가 강화되면서 전년 대비 60% 상승한 2,400만 달러 기록
 - 양국 간 호혜적 경제협력, 상호 투자증대를 목표로 한-카 중장기 협력 프로그램인 ‘Fresh Wind’가 채택됨에 따라 對카자흐스탄 투자에 대한 전망이 기대되었음.
-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환율 리스크, 진출기업 퇴거 등으로 투자액이 2019년 대비 33.3% 감소하여 1,600만 달러를 기록
 - 2021년 8월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국민 방한을 계기로 경제협력 프로그램(Fresh Wind) 개편 등 對카자흐스탄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2021년 투자액도 2020년 대비 31% 감소
 - 2023년 상반기는 투자액이 전년 동기 대비 1,400% 증가한 4,500만 달러를 기록

- 한국의 對카자흐 투자는 주로 금융·보험업, 제조업, 건설업, 부동산업에 집중
 - 2018-2021년 최다 투자 분야는 금융 및 보험업으로 국민은행(2007), 신한은행(2008), 신한파이낸스(2014) 진출에 이어 2018년 BNK캐피탈이 진출하면서 금융업 투자액이 증가
 - * 전체 투자액 중 금융·보험업 비율 : (2018년) 34.3%, (2019년) 43.1%
 - 특히 2018년 보건·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첫 투자 진출이 이루어지면서 한국 및 카자흐스탄 의료분야 협력 기대 증가
 - * 보건·사회복지 분야 투자액은 2018년 24.5만 달러에서 2019년 169.5만 달러로 약 7배 증가
 - 2020년 최다 투자 분야는 제조업으로 전체 투자의 87.5%를 차지
 - 2022년 광산업에도 첫 투자 진출이 이루어짐.
- 현대차, 기아차의 현지 승용차 조립생산 확대 및 KT&G의 카자흐스탄 진출로 2023년 상반기 투자 금액이 크게 증가

〈최근 7년간 한국의 對카자흐스탄 투자 동향〉

(단위: 건, 백만 달러)

구 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 상반기
신고건수	35	49	34	33	46	40	35
투자액	7	15	24	16	11	3	45

자료원 : 한국수출입은행

〈최근 7년간 업종별 투자동향〉

(단위: 백만 달러)

구 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 상반기
농업, 임업 및 어업	2	1	-	-	-	3	-
제조업	1	1	7	14	-	-	41
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	-	-	2	-	-	-	-
건설업	-	4	1	-	-	-	-
도매 및 소매업	1	-	-	-	1	1	1
금융 및 보험업	-	5	10	-	5	-	-
부동산업	3	-	-	-	-	-	-
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-	1	-	-	-	-	-
사업시설 관리,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-	2	-	-	-	-	-
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-	-	2	-	-	-	1
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	-	-	-	1	-	-	-
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	-	-	-	-	-	1	-
석탄 광업	-	-	-	-	-	1	-
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	-	-	-	-	2	-	-
전자상거래 소매업	-	-	-	-	1	-	-
광업	-	-	-	-	-	1	-
정보통신업	-	-	-	-	-	-	1

자료원 : 한국수출입은행

• 주요 진출기업 현황

구분	기업명
상사	현대종합상사(지사), 포스코인터내셔널(지사) 등
금융	신한은행(법인), 신한파이낸스(법인), BNK캐피탈(법인)
건설사	동일토건(법인), 우림건설(법인), SK건설(사무소) 등
제조·유통	롯데웰푸드(법인), 삼성전자(법인), LG전자(법인) 등
운송	아시아나(지사), 우진글로벌(법인), 에코비스(법인), 태웅로지스틱스(법인) 등
공기업	한국관광공사, 한국보건산업진흥원, 한국석유공사,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등

자료원 : KOTRA 알마티 무역관

▣ 한국 기업의 투자 성공 사례

구분	내용	시사점
롯데제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13년 현지 제과업체인 라하트사 주식 인수를 통해 카자흐스탄 시장 진출 • 2015년 공장라인을 확장하고,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개시하는 등 시장 점유율을 서서히 높여가는 중 • 2019년 기준 라하트 주식의 95.57%를 보유 중이며, 카자흐스탄 1위 제과업체로 부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지 기업 인수를 통한 시장 확대 성공 사례
신한은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08년 은행업 진출 인허가 획득 • 2009년 지점영업 개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카자흐스탄 정부의 첫 인허가 승인 사례
동일토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카자흐스탄에 ‘하이빌 아스타나 주거복합타운’을 포함한 8,000가구를 보급하는 등 성공적으로 진출 • 카자흐스탄에 최초로 선보인 한국형 아파트가 현지인 사이에 인기를 끌며 시장을 확대 중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한국형 아파트 보급을 통해 시장 확대에 성공한 투자 진출 사례

자료원 : KOTRA 알마티 무역관

다. 협력 유망 분야

▣ 프로젝트 협력

- 카자흐스탄 국가 프로그램 ‘누를리 줄 2020-2025’ 채택에 따른 협력 추진
 - 카자흐스탄 정부는 2020년 4월, 낙후된 도로·운송 인프라의 구축·재건을 목표로 ‘누를리 줄 2020-2025’ 국가 프로그램을 채택하였으며 원활한 물류환경 조성을 통한 및 수출 성과 증대 추진 중

- 2025년까지 5.5조 텡게(약 130억 달러) 규모, 112개의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가 실행될 계획이며, 총 2.1만km의 도로를 건설 및 수리 예정
- 프로젝트 참가를 통한 양국 협력 추진
 - 기 진행 혹은 진행 예정인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현지 입찰 적극적 참여. 기존 우리 기업의 카자흐 내 프로젝트 실적을 활용한 기술력 홍보 및 신뢰성 확보 노력 지속

■ 한-카자흐 정상외교 연계 경제협력

- 카자흐스탄은 10만 명이 넘는 고려인을 가교로 한국에 대한 높은 호감도를 가지고 있는 중앙아시아 내 핵심 우방국으로 1992년 1월 28일 외교관계 수립 이후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지속 중
- 2019년 4월, 한-카자흐 정상 순방 계기로 양국 공동위 대표 간 ‘Fresh Wind 2019-2022’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체결하고, 무역경제, 산업자원에너지, 혁신기술 등 방면 중장기 협력 방향 제시
 - 2019년 체결 당시 협력 분야로 지정한 통관인프라보건의료관광중소기업 등 10개 분야 58개 사업의 이행 상황을 모두 점검하고, 2021년 8월 카자흐 대통령 국빈 방한 시 7개 분야 31개 사업으로 협력 분야 개편 조정
 - 디지털 경제, ICT 역량 강화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로 협력 다변화 필요
- 경제협력 프로그램 틀 내에서 텡기즈 유전 원유생산 플랜트, 알마티 자동차 조립 공장 설립, 알마티 지하철 전동차 납품, 알마티 외곽 순환 고속도로 건설, 심켄트 복합 화력발전소 등 이행
 - 알마티 순환도로 건설사업은 우리나라가 중앙아시아에서 시행하는 최초의 PPP 사업이며, 한-터키 제3국 공동 진출 우수사례
- 2021년 8월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국빈 방한 후, 양국 정상 간 합의한 사항을 지속 점검 및 세부 과제 발굴 등을 위해 스클라르 부총리가 2021년 10월과 2023년 4월에 재방한하여 직접 한-카 간 경제협력 프로젝트 관리의지 표명

▣ 의료분야 협력

- 단순 의료관광 위주의 현 상황에서 의료 컨설팅 및 한국형 병원 진출 등의 형태로 사업 확대 필요
 - 카자흐스탄은 의료 환경 수준이 열악하여 최근 수년 간 한국형 의료서비스를 찾는 고객이 증가하는 추세임.
- 의료 PPP 프로젝트 분야에서 한국 병원의 협업수요 발굴 추진
 - 정부의 병원 건설 프로젝트 입찰 참여 및 K-보건의료·방역 제품의 수출 확대를 위한 협업 강화

▣ 농업 분야 협력

- 카자흐스탄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과 ‘농업 개발 2021-2025’ 정부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농업의 발전을 통한 수출 확대, 경제 성장 모색
 - 카자흐스탄은 농업 분야에서도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, 빅데이터 처리 및 AI 기술 접목, 스마트팜 등에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.

Chapter



진출전략



- ※ 인프라/교육/에너지 등 정부주도 개발 사업에 기술력/품질 우위를 활용
- ※ 한류와 디지털을 활용한 IP사업(콘텐츠 및 굿즈)과 소비재 분야 진출

1 PEST 분석

<p>P 정치정책 (Political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치적 안전성: 카자흐스탄은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적이지만,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경향이 있음. • 국제관계: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가 두드러지며, 대국들과의 투자 및 자원 교환이 활발함. • 법률 및 규제: 외국 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과 규제가 있으나 부패와 불투명한 법률 시스템이 투자의 장애물로 작용함. • 인권 문제: 권위주의적인 정치 체제로 인해 언론 및 집회의 자유 등이 제한되고 있어서 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있음.
<p>E 경제 (Economic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원 부족: 석유, 천연가스, 다양한 광물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 • 경제 성장: 자원 수출 덕분에 일정 수준의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자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. • 투자 기회: 인프라 개발과 교육, 에너지 등 정부 주도 분야에서 다양한 투자 기회가 있음. • 물가와 인플레이션: 경제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장기화, 강달러 기조, 정부의 기준금리 인상 및 환율 변동 위험성 상존
<p>S 사회문화 (Social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인구 구조: 높은 인구 성장률을 보이며 젊은 인구가 상당히 많고, 미래 노동시장 및 소비시장에 대한 잠재력 보유. • 교육 및 인재 육성: 교육 체제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, 고등교육과 전문 기술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적 불균형 및 질적인 문제 존재 • 문화와 언어: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로 공용어로 러시아어를 사용하나, 카자흐어 사용을 장려하고 있음. • 사회적 불평등: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, 사회적 불평등과 빈부의 차이가 심화되고 있음.
<p>T 기술 (Technological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디지털화 및 IT 인프라: 인터넷과 디지털 인프라의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으며, 디지털 결제, 온라인 비즈니스, 원격 근무 등이 빠르게 확산 중 • 에너지 기술: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재생에너지와 친환경화적인 기술에 대한 투자와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. • 기술 연구와 개발: 정부 및 민간 부문에서 R&D 투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, 특히 첨단 기술, 바이오, AI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 • 기술 수용과 교육: 기술의 빠른 수용과 활용을 위해 기술 교육과 리터러시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음.

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

〈카자흐스탄 시장 SWOT 분석〉

<p>강 점(Strength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장 내 한국의 고품질/기술력에 대한 인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삼성/엘지/현대·기아 등 제조/IT 강국 이미지 • K-pop, K-drama, K-beauty, K-food 등 한류로 인한 한국 문화/제품에 대한 큰 관심 • 정부 차원의 경제적 협력 활성화 노력 	<p>약 점(Weakness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리적 거리에 따른 높은 물류·운송비용 및 공급망 관리의 어려움 • 예측하기 어려운 다소 불투명한 비즈니스 환경과 규제는 시장진출 장애물로 작용 • 언어 및 비즈니스 문화의 차이
<p>기 회(Opportunity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원/에너지, 인프라, 기술개발 투자확대에 따른 건설/기술/장비 공급 등의 다양한 기회 •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대 러시아 제재로 중앙아 지역으로의 수출 및 투자진출 기회 확대 • 경제적 안정성은 한국 기업들에게 투자 및 사업확장에 대한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 	<p>위 험(Threat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권위주의적인 정부, 인권 문제로 인한 정치적 불안으로 우리 기업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 야기 • 자원 의존적인 경제구조로 국제 상품가격 변동에 따른 경제 불안정성 우려 • 중국, 러시아, 유럽 등과의 경쟁 심화로 시장 점유율 확보에 어려움 초래

전략 방향	세부전략	진출전략
SO 전략 (역량 확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높은 기술력을 활용한 에너지 프로젝트 참여 • 높은 수준의 건설 및 기술 서비스로 인프라 개발 참여 • 한류를 활용, 한국 브랜드와 제품의 시장점유율 확대 	한류 및 기술력을 활용한 소비재 및 인프라 시장 진출
ST 전략 (강점 활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치적 위험, 경제적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강점인 기술력과 품질이 뛰어난 제품(제조) 및 IT(서비스)위주의 수출 전략 전개 	디지털을 활용한 제품 유통 및 IT 서비스 분야 진출
WO 전략 (기회 포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리적인 약점을 보완,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현지화 또는 현지 파트너 확보 온라인을 활용한 지리적/언어적 한계 극복 	현지화 또는 현지 파트너 활용
WT 전략 (위험 대응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규제 변동, 정치적 불안정 등의 위험을 감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Monitoring을 통한 시장 분석과 진출 방안 모색 	KOTRA 등 정부 기관의 지원사업 참여를 통한 진출

3

주요 이슈·산업별 진출전략

분 야	주요 이슈·산업별 진출전략
차량용 부품품 및 부속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러-우 사태 이후 한국 자동차 부품품 및 부속품에 대한 카자흐스탄 내 수요 증가 (러시아 수요 흡수) • 높은 신차 가격으로 중고차 수요 증가,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국 차의 시장 내 수요 확대에 따른 부품 수요 확대
화장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22년 기준, 카자흐스탄 화장품 수입 TOP 5 국가에 포함 • 한류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한국 화장품의 수요 증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초, 스킨케어, 헤어케어 및 미백, 주름 개선 등 기능성 제품 인기
IP 상품 및 콘텐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K-pop, K-drama 등 한류 콘텐츠의 인기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튜브 등 무료 콘텐츠 활용도가 높음. • 한국 가수 및 배우 등의 패션, 소품, 음식 등에 대한 관심 증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비자 및 식품의 한류 마케팅을 활용한 현지 시장 공략
영농기술 및 농기자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스마트팜 등 농업 개발을 위한 정부 주도 개발 프로그램 전개 •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, 넓은 농지, 중국 및 CIS 주변국 수출 가능 • 스마트팜 및 농축산업 관련 IT 기술 및 서비스 수출 유망
의료기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카자흐스탄 보건산업 재정 규모 지난 20년간 10배 이상 증가 • 정부의 “2021-2025 Health Vision” 프로그램 진행 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종합병원 설립, 의료분야 디지털화와 소프트웨어 개발 등 참여 기회 확보 • 주요 수입국인 독일의 제품 대비 가성비 높은 한국 제품 수요 증가

“정부 주도 개발 분야” 및 “한국의 경쟁력 우위 분야”에 집중된 시장진출

3-1. 차량용 부분품 및 부속품

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

- 2022년 차량용 부분품 및 부속품 시장 규모는 약 7억 6,556만 달러로 이 중 한국산 수입은 27.3% 비중인 2억 달러를 차지
- 현지 조립생산 확대에 따른 신차용 부분품 및 부속품 수입 증가와 높아진 신차 가격 때문에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중고차용 교체 부품 수입도 동시에 증가
- 2022년 기준, 카자흐스탄에 등록된 전체 차량 390만 대 중 약 71%가 2012년 이전 출시된 노후 차량으로 부품 교체 및 수리에 대한 수요 다대

주요 이슈 및 트렌드

- 러시아가 차량용 부분품 및 부속품 수입국 중 1위였으나,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러시아 제재로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면서 공급선 다변화 현상 발생
 - 카자흐스탄 생산 자동차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주요 조립 생산기업들의 라인 증설 및 생산 브랜드·모델 확대 계획 수립 중
 - 현지 조립생산 확대에 따라 신차용 부분품 및 부속품 수입과 동시에 중고차에 대한 수요 증가로 중고차용 교체 부품 수입도 증가 추세
- 중고차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어 부품 교체 및 수리에 대한 수요가 많음.
 - 2022년 기준, 카자흐스탄 등록 차량 390만 대 중 약 50%가 20년 이상 노후 차량
 - 신차보다는 중고차 거래가 활발하며 이에 따라 애프터마켓 시장이 발달되어 있고, 주요 수입국은 러시아, 벨라루스, 중국, 독일, 우즈베키스탄 등임.
- 자동차부품 수입업체들은 비싼 물류비 때문에 주로 주변국에서 수입하는 편임.

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

- 제동장치, 자동차 휠, 기타 부분품 등(HS Code 870830, 870829, 870870)에 대한 수요가 높음.
- 현지 파트너사를 발굴하여 시장에 진출해야 하며, EAC 인증을 비롯한 세금 납부 등은 통상적으로 현지 업체가 담당하고 있음. 아울러, 인증 획득 등 서류 준비기간은 약 1~6개월이 소요됨.

- 카자흐스탄으로 수입되는 주요 차량용 부분품 및 부속품 브랜드는 한국의 경우 CTR, Doohap, Shin Hwa 등이고, 유럽은 Boge, Swag, Sachs, 중국은 SAT, 터키는 Hosu, 일본 브랜드로는 Toyota, GMB, 555, KYB 등이 있음.
- 카자흐스탄 차량용 부분품 및 부속품 수입 관세는 따로 없고, 부가가치세는 12%임. 차량용 부분품 및 부속품 수입 시 별도 인증 취득은 필요 없으나 'Certificate of Eurasian Compliance EAC'라는 제품 적합성을 확인하는 서류 발급과 165유로의 통관세 필요

3-2. (화장품) 스킨케어, 헤어케어 제품

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

- 카자흐스탄 화장품 시장은 규모는 1억 9천만 달러로, 90%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.
- 대부분 러시아, 중국, 한국에서 수입되며, 2022년 기준 한국에서는 948만 달러 규모 수입
- 우리나라의 對카자흐스탄 수출 품목 중 화장품은 2022년 기준 4위를 기록

▣ 주요 이슈 및 트렌드

- 한국제품 중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은 스킨케어와 헤어케어 제품
 - 소비자들은 한국 화장품이 자연 친화적인 재료로 만들어져 피부에 자극이 되는 성분 함유량이 매우 적다고 느끼고 있음.
 - 화장품 중에서도 천연 보습 성분, 자외선 차단 성분 등 기능성 제품을 선호
 - 최근에는 샴푸, 에센스, 린스 등 다양한 기능이 포함된 헤어케어 제품 인기가 좋고, 집에서 직접 염색 등 할 수 있는 미용 가젯 등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음.
- 2022년 기준, 설문조사 결과 카자흐스탄 화장품 소비자의 약 30%가 온라인 구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저렴한 가격대 제품에 이어 중고가 라인 제품들의 진출이 확대되는 추세
- 헤어케어 제품의 경우 수입 상위 3개국 중 러시아(57.3%), 루마니아(6.3%)에 소재한 다국적기업의 수입 비중 높음 * P&G社(루마니아), Unilever社(러시아), Loreal社(러시아)
 - 관세 및 물류비 부담 등으로 주변·인접국 제품 대비 가격경쟁력 취약

▣ 진출전략

- EAC 인증 취득 필수
 - 카자흐스탄으로 스킨케어, 헤어케어 등의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EAC 인증을 받아야 하며, 일반적인 제품일 경우 발급에 약 1주일이 소요됨.
 - 하지만 의료목적의 화장품이나 화이트닝 등 특정 기능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인증서 발급에 최대 3개월이 소요되기도 함.
- 제품의 차별적 품질로 경쟁 필요
 - 유럽, 터키, 러시아 등과 경쟁이 치열하지만 타 제품과 차별성 및 합리적인 품질을 갖추고 있다면 카자흐스탄 소비자들은 조금 비싸더라도 기꺼이 구매할 의향이 있음.
- SNS·인플루언서를 통한 온라인 마케팅 전개 시 성과 창출 가능
 - 카자흐스탄의 많은 소비자들은 제품 정보를 SNS와 인터넷에서 확인하고 있고, 대부분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.
 - K-pop, K-drama가 유행하며 한국 뷰티 제품에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 SNS 및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마케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.

3-3. IP 상품 및 콘텐츠

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

- 카자흐스탄은 K-pop, K-drama 등 인지도가 매우 높은 한류 열풍의 거점으로 K-pop에서 영감을 받아 Q-pop, KG-pop 등 현지화 전파 중
- 한국 IP 상품 및 콘텐츠의 전망은 매우 유망하나, 아직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한 외부 유출이 시장 진입에 약점

▣ 주요 이슈 및 트렌드

-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의 한류 열풍 거점이자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 및 투자 대상국으로 신북방 지역의 핵심 파트너 국가임.
 - 양국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2022~23년을 양국 간 상호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

- 지금의 한류 열풍 이전부터 약 10만 명이 넘는 고려인이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데 역할을 해왔고, 1998년부터 한국 드라마가 현지에서 방송되어 한국 콘텐츠에 익숙
- 카자흐스탄 내 K-pop 시장은 굿즈 판매 등 포함 320만 달러 규모로 추정
 - 인터넷 보급 및 유튜브의 확산으로 최신 K-pop 트렌드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카자흐스탄은 Q-pop, 키르기스스탄은 KG-pop 등으로 현지화 전파 중
 - 아직 카자흐스탄은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P2P를 통한 불법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한 시청률이 높은 상황

▣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

- 러시아-우크라이나 사태로 서구 업체들이 철수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(OTT, 게임, 애니메이션 등 러시아 콘텐츠 산업의 대체 수요 다대
 - 러시아 자체 OTT 플랫폼(IVI 등) 대상 국내 우수 방송콘텐츠 확충
- K-pop, K-Drama 등 문화콘텐츠의 인지도 확산세를 활용,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해 장기적인 시장 확대 기회 마련
 -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고객층이 형성되어 있는 한국형 베이커리, 음식점 등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 수요도 급증
- 현지 문화 콘텐츠 관련 전시회 참가를 통한 진출 기회 마련
- 현지 엔터테인먼트사 및 방송국과 협업을 통해 한국 콘텐츠를 활용한 현지 방송 프로그램 제작

3-4. (농업) 영농기술 및 농기자재, 축산업

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

- 농업 분야는 카자흐스탄 전체 GDP 중 약 5% 차지하고, 전체 고용 기준 농업 비중이 15%
- 최근 현지 생산 농산물의 약 60%가 가공 없이 원재료로 수출되며, 일부 가공제품은 수입
- 중국, 러시아 등 배후 소비시장을 목표로 한 돼지, 소, 양 사육 증가

▣ 주요 이슈 및 트렌드

- 카자흐스탄 농업부는 '농업 개발 2017~2021'에 이어 '농업 개발 2021~2025'을 연이어 국가 프로그램으로 채택하고, 약 5조 텡게(약 117.6억 달러)를 투입하여 농업 부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 조성 중
 - 금번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국산 농산물의 시장 공급, 농장 디지털화, 혁신 장비 사용, 고품질 종자 사용, 광물질비료 사용, 수의학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 총 투입 예산은 5조 텡게(약 117.6억 달러)에 달함.
- 농업 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출은 2023년 1월 기준 249억 텡게(약 5,298만 달러)로 전년 동기 대비 36.3% 증가한 수치임.
- 민간 농가 및 소규모 농업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지원책도 제공 중
 - 수확률 향상 및 생산 작물의 품질 개선을 위한 농업용 비료 구입 지원 등
 - 세금 납부 지연 시 이자 발생 정지, 농지에 대한 토지세 면제, 필수 식품에 대해 VAT를 8%로 별도 설정(일반 12%) 등

▣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

- 농기계, 비료, 스마트팜 기자재 등
 - 카자흐스탄은 넓은 농지에도 불구하고 농업 생산성이 낮음. 상당수의 농기계가 낙후되어 있으며, 비료 사용량도 많지 않아 효율적인 작물 수확에 한계
 - 아울러, 농가의 낮은 PC·인터넷 보급률은 스마트팜을 비롯한 자동화 시스템 도입의 장애물로 적용
 - 하지만, 최근 정부 주도로 스마트팜 시범단지가 곳곳에 건설되고 있으며, 토마토, 딸기를 스마트팜에서 재배하여 유통하는 농가가 등장하기 시작함.
- 육류 가공 기계, 축산 스마트팜 시스템 등이 당분간 유망할 것으로 보임.
-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 투자, 협업 등
 - 카자흐스탄 영세 농가를 타겟으로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국고 수혜를 받을 확률이 높은 국립 농업연구소, 국립 대학교, 에이전트 등을 발굴하여 협업 필요

3-5. (의료) 의료기기

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

- 국가 차원의 건강 보건 증진을 위한 2021-2025 Health Vision 프로그램 추진 중
- 카자흐스탄 정부는 선진 의료 기술 도입에 매우 적극적인 반응 보이고 있음
-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90%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.

▣ 주요 이슈 및 트렌드

- 카자흐스탄은 의료서비스 발전, 의료시설 확충 및 현대화 등을 목적으로 2020-2025년 의료개발 국가 프로그램을 진행 중
 - 2022년 4월 기준 카자흐스탄 정부는 보건 산업에 8,079억 텡게(약 17억 달러)를 지출, 작년 동기 대비 7.9% 증가한 수치
 - 2025년까지 카자흐스탄 국가 개발계획은 모든 출처의 자금조달 금액을 늘려 의료 시스템 재정 수준을 GDP의 5% 수준으로 높이는 목표를 설정
 - 정부는 보건 산업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며, 더 높은 단계로의 도약을 위해 의료분야의 디지털화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
- 2022년 기준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의료기기 수출은 약 2,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7.3% 증가
 - 특히 치과 기자재의 경우, 유럽산 제품 대비 품질이 우수하고 가성비가 좋아 2019년부터 수입 상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, 2022년 기준 1,057만 달러 수출
- 2022년 기준 주로 일본, 중국, 한국, 독일, 미국에서 의료 장비를 수입

▣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

- 카자흐스탄은 여전히 현지 공공의료 인프라가 취약하고, 지역·사회 계층 간 의료서비스 편차로 자국 의료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저조함.
 - 카자흐스탄은 질병 치료를 위한 선진 의료 기술 도입에 매우 적극적이며, 이를 위한 의료 장비나 의약품 공급에 대해서는 해외에 의존하고 있음.
 - 현지에서는 한국의 의료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있어 한국형 ICT 의료기술 및 의료시스템 보급, 제약의료기기 산업 진출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 병원과의 협업수요 발굴 및 PPP 프로젝트 입찰을 통해 현지 시장 진출 필요
- 카자흐스탄 내 의료기기, 의약품 판매·수출을 위해서는 등록/인증 절차 필수
 - 등록/인증 신청 서류 접수 및 증명서 발급은 카작어나 러시아어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러시아어 가능 인력이 없을 경우 에이전트 이용을 추천
 - 러시아어 카탈로그와 현지 광고는 필수이고, 수출 후에도 장비에 대한 교육도 필요

첨부 1

수출 유망 품목 (상품)

품목명 1		
중고 자동차	선정사유	▶ 2022년 기준, 현지 자동차 생산 비율이 전년 대비 약 21.9%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, 한국 생산 현대 및 기아의 다양한 라인의 중고차 수입에 관심이 많음.
	시장동향	▶ 2023년 상반기 기준, 중고 자동차(HS code 8703) 주 수입 국가였던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98% 감소 ▶ 대한 수입액은 2023년 상반기 기준 6.4억 달러를 기록하며, 전년 동기 대비 약 77.2% 증가
	경쟁동향	▶ 카자흐스탄 내 자동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국 외 일본, 중국, 태국에서도 중고 자동차 수입이 늘어나고 있음.
	진출방안	▶ 현지 수입 및 유통업체 발굴 필요 ▶ 수입 통관에 필요한 서류 및 정확한 절차 숙지 필요
품목명 2		
자동차 부품	선정사유	▶ 2022년 기준 카자흐스탄 등록 차량 390만 대 중 약 50%가 2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고, 중고차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어 부품교체 및 수리에 대한 수요가 많음.
	시장동향	▶ 현지 조립생산 확대에 따라 신차용 부품 수입과 동시에 중고차 수요 증가로 중고차용 A/S 부품 수입도 증가 추세 ▶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국산 자동차 브랜드 - (DAEWOO) Nexia, Lanos, Matiz - (HYUNDAI) Accent, Elantra, Creta, Sonata, Santafe, Tucson - (KIA) Picanto, Rio, Cerato, K5, Soul, Seltos, Sportage
	경쟁동향	▶ 최근 3년간 자동차부품 수입 통계에 따르면, 주요 수입국은 러시아, 중국, 독일, 한국임. ▶ 중국산 전기차량 수입이 늘어나고 있으나, 낮은 휘발유 가격, 충전 인프라 부족 등으로 여전히 내연기관 수요 다대
	진출방안	▶ 현지 파트너 및 유통 업체 발굴 필요 ▶ EAC 인증을 비롯한 세금 납부 등은 통상적으로 현지 업체가 담당하고, 인증 획득 등 서류 준비기간은 약 1-6개월 소요
품목명 3		
차량용 엔진오일	선정사유	▶ '23년 3월 기준 등록 차량 수는 458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5.2% 증가. 엔진오일 시장은 연간 1억 8천만 리터를 초과 ▶ 카자흐스탄 내 신차 구입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한국산 고품질의 엔진오일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판단됨.
	시장동향	▶ '22년 엔진오일 전체 수입액은 전년 대비 9% 증가한 1억 976만 달러 ▶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년 대비 55.3% 증가
	경쟁동향	▶ '21년까지 엔진오일 전체 수입의 78%를 차지했던 러시아가 현재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수입 규모 대폭 감소 ▶ 러시아 외 키르기스스탄, 핀란드, 독일, 한국에서 수입 중
	진출방안	▶ 현지 파트너 및 유통 업체 발굴 필요 ▶ EAC 인증 필수

품목명 4		
치과기자재	선정사유	▶'16년 8월부터 현지 은행의 할부 결제 서비스 도입 및 '21년 연금의 일부를 의료비 지출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다소 비싼 치료비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, 치아교정 치료가 대중화되었고, 수요도 급증
	시장동향	▶'22년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치과 기자재 수출은 전년 대비 85.3% 증가한 1,057만 달러 ▶'19년부터 수입 상위 1위 유지 중
	경쟁동향	▶주로 한국, 스위스, 브라질에서 수입 ▶높은 수입의존도와 유럽 및 미국산 제품의 가격이 높아 한국산 시장 선점 유리함
	진출방안	▶현지 유통사 및 큰 규모의 치과병원 외 증가 추세인 중소 규모의 개인병원 대상으로 마케팅 집중 공략 ▶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있어 현지 의료인들을 집중하여 교육 세미나와 같이 제품 홍보 행사 실행 추천
품목명 5		
건축자재	선정사유	▶건설업 활황으로 건축 자재 수요 증가
	시장동향	▶국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인 '주택 및 지역개발 프로그램 2020-2040' 등 국가 주도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진행 중 ▶카자흐스탄의 건축자재 수입의존도는 50%를 상회 ▶현지 생산 자재 또한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다수를 수입에 의존 ▶현지 수요가 많은 건축자재는 유리, PVC 파이프, 철근, 세라믹 타일, 단열재, 벽지, 벽돌, 지붕 자재, 포틀랜드 시멘트, 시트지 및 인테리어 필름 등 ▶전년 대비 건축자재 수입 3.6% 증가 등
	경쟁동향	▶대부분 중국, 러시아, 터키 등에서 수입
	진출방안	▶현지 파트너 및 유통 업체 발굴 필요 ▶중앙아시아 최대 건축 전시회인 'KazBuild 전시회' 활용
품목명 6		
의료기기	선정사유	▶의료 서비스 발전, 의료시설 확충 및 현대화 등을 목적으로 2021-2025년 의료개발 국가 프로그램을 진행 중
	시장동향	▶카자흐스탄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연간 약 2억 달러 ▶유통되는 의료기기의 90% 이상을 수입에 의존 ▶초음파 기계, X-Ray, CT 촬영기, MRI 등 진단용 장비와 치료 장비에 대한 수요가 많음.
	경쟁동향	▶2023년 기준, 주로 중국, 독일, 미국, 일본, 한국에서 수입 ▶2023년 한국에서의 수입은 6위를 차지, 작년 대비 102.7% 증가하였고, 주 경쟁 국가는 일본과 독일임.
	진출방안	▶의료기기 판매·수출을 위해서는 등록/인증 절차 필수 ▶등록/인증 신청 서류 접수 및 증명서 발급은 현지어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에이전트 이용을 추천 ▶러시아어 카탈로그와 현지 광고는 필수이고, 수출 후에도 장비에 대한 교육도 필요

품목명 7		
전동킥보드	선정사유	▶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 수요 지속 증가 중으로 특히 전동 킥보드는 시장 진출 2년 만에 이용자 수 급증
	시장동향	▶2023년 상반기 기준, 자전거를 포함한 전동킥보드 교역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약 72% 증가한 1,493만 달러 ▶카자흐스탄 정부는 환경 보호 및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2030년까지 누르술탄 123km, 알마티 262.8km까지 자전거 전용 도로를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임.
	경쟁동향	▶'23년 상반기 기준 중국이 63%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, 중국 외 러시아와 대만에서 수입 중
	진출방안	▶현지 모빌리티 서비스 파트너 발굴 및 현지 정부 대상 공급 계약 ▶보호 장구 등 기타 액세서리와 패키지로 제안
품목명 8		
보일러	선정사유	▶카자흐스탄 보일러 시장 규모는 약 3,000만 달러로, 90%를 수입에 의존
	시장동향	▶현재 카자흐스탄 보일러 시장에서 인기 있는 브랜드는 NAVIEN, Kiturami, Vans, Sekwang Boilers 등임. ▶2023년 7월 기준 보일러 전체 수입 규모는 3,600만 달러 ▶인프라 개발 확대로 산업용 보일러의 수요가 증가 예상 ▶에너지 효율성 향상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산 고효율 보일러 수요도 증가 예상
	경쟁동향	▶주로 한국, 러시아, 중국 등에서 수입되며, 한국산 제품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 ▶한국산 브랜드 외에 RINNAI, Lemax, Thermex, Hubert, Viessmann, Ariston, Oasis, Shivak, Vangood 등의 브랜드들이 인기 있고, 주 경쟁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임
	진출방안	▶현지 소비자들은 보일러 가격과 구매 조건을 우선 고려함. ▶이미 현지에 진출한 신뢰도가 있는 브랜드나 제조업체를 선택하며, A/S 서비스가 잘 갖추어진 브랜드를 선택 ▶"Certificate of Eurasian Compliance EAC"라는 제품 적합성을 확인하는 서류 발급 필요
품목명 9		
영유아용 스킨케어 제품	선정사유	▶스킨케어 제품의 90% 이상은 수입에 의존 ▶유아용 스킨케어 제품은 특히 한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 중
	시장동향	▶한국 제품은 안전하고, 고품질이라는 이미지가 자리 잡혀 있음. ▶카자흐스탄은 인구 증가와 함께 소득도 증가하면서 유아용품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 유아용품 시장이 지속 성장 중
	경쟁동향	▶한국 제품이 가장 인기가 높고, 그 외 미국, 프랑스, 중국, 폴란드 등에서 수입하고 있음.
	진출방안	▶대형 유통업체가 해외로부터 수입하여 도·소매 업체에 공급하거나, 대형 체인점 형태 매장의 경우 직접 수입 및 판매 ▶글로벌 브랜드 제품들의 경우, 현지 공식 딜러와 독점계약을 맺고 공급하고 있음. ▶유아용품 수입 세율은 6.5%이고, 부가가치세는 12% ▶스킨케어 제품은 제품 등록 및 인증 취득이 필수

품목명 10		
건강기능식품	선정사유	▶ 열악한 국립병원 시설, 오랜 대기시간, 오진찰 등으로 가벼운 질환은 자가치료를 선호하고, 질병 예방 및 면역력 강화를 위해 영양제 수요 확대 전망 ▶ 비타민, 면역강화제, 심혈관 질환 예방 관련 영양제 수요 다대
	시장동향	▶ '22년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건강보조식품 수출은 전년 대비 502% 급증했으나, '23년 상반기 들어 주춤세 ▶ 대부분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을 수입에 의존하여 '22년 기준 현지 제약 생산 전년 대비 13% 하락, 수입은 30.2% 증가
	경쟁동향	▶ '22년 기준, 러시아, 미국, 중국, 독일, 프랑스, 한국에서 주로 수입되고 있음.
	진출방안	▶ 등록/인증 신청 서류 및 인증서 발급은 현지어로만 가능함으로 에이전트를 활용 필요 ▶ 중앙아시아 최대 헬스케어 전시회인 'KIHE 전시회' 활용
품목명 11		
굴삭기	선정사유	▶ 카자흐스탄 SOC 프로젝트 및 민간 건설 프로젝트 증가 추세로 굴삭기 수요도 확대
	시장동향	▶ '23년 7월 기준, 카자흐스탄 굴삭기 시장 규모는 약 1억 1,069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.6% 성장 ▶ '23년 7월 기준,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.7% 증가(944만 달러)
	경쟁동향	▶ 카자흐스탄 굴삭기 시장은 중국, 일본, 미국, 러시아 및 한국 등의 주요 메이저 회사 간의 가격경쟁이 치열함.
	진출방안	▶ 건설 중장비 수입 현지 딜러나 에이전시 발굴 필요 ▶ 'Transport Vehicle Type Approval'라는 장비 적합성을 확인하는 서류 발급이 필요
품목명 12		
온실하우스 필름	선정사유	▶ 카자흐스탄 온실하우스(스마트팜) 건축 수요 매년 증가세
	시장동향	▶ 지난 10년 간 온실하우스 면적은 18배 이상 증가했고, 2022년 기준 218.9ha에 달함. ▶ 온실하우스는 주로 카자흐스탄의 남부 지역에 집중(알마티 인근, 쉘켄트 등)
	경쟁동향	▶ 온실하우스 필름은 주로 러시아, 중국, 이스라엘, 호주, 터키, 독일, 한국에서 수입 ▶ 소수의 현지 제조업체가 있으나, 시장점유율은 미미한 편
	진출방안	▶ 대형 유통업체를 통한 현지 진출 필요

첨부 2

수출 유망 품목 (서비스)

품목명 1		
온라인 구독 서비스	선정사유	▶ 현재 카자흐스탄 내 구독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낮으나, '22년 기준, 카자흐스탄의 온라인 거래 규모는 약 27억 달러 수준으로 다양한 분야의 구독 서비스 진출 가능성 다대
	시장동향	▶ 글로벌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제외한 오프라인과 연계한 온라인 구독 서비스는 현재 카자흐스탄 내 없음. ▶ 소모품 정기 배송 모델, 내구재 대여 모델, 콘텐츠 무제한 이용 모델 등 다양한 구독 서비스 전망 다대
	경쟁동향	▶ 현재 카자흐스탄 내 구독 서비스 제공기업 없음.
	진출방안	▶ 온라인 채널(홈페이지 등) 개설 및 현지 파트너 발굴
품목명 2		
E-Health (원격의료)	선정사유	▶ 카자흐스탄 보건부는 원격의료를 의료시스템의 디지털 개혁을 위한 주요 도구 중 하나로 인식 ▶ 카자흐스탄 원격의료 시장은 향후 5년 내 1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
	시장동향	▶ 카자흐스탄 원격의료 시장은 아직 미미하고,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주요 병원들이 시범 실시함. ▶ 일부 사설병원에서는 본격적인 도입을 위해 전자 차트 시스템,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준비 중에 있음.
	경쟁동향	▶ Choco family 사의 iDoctor.kz 서비스를 통해 원격진료를 처음 카자흐스탄에 선보였음.
	진출방안	▶ 온라인 홈페이지 개설하고, 병원 및 의사의 레퍼런스를 적극 공개, 활용하여 신뢰도 형성 필요 ▶ 법적으로 원격진료를 통한 진단 및 처방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.
품목명 3		
물류	선정사유	▶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양국 교역이 증가하는 만큼 한국 기업의 수출마케팅을 겸한 물류 서비스 제공 및 신규 운송 루트 개발이 필요해 보임.
	시장동향	▶ 러-우 사태 이후 카자흐스탄을 경유하는 물동량 급증 ▶ 카자흐스탄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가운데에 위치하여 물류 허브로서의 유리한 조건 보유
	경쟁동향	▶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다수의 한국 물류기업이 진출해 있으며, 현지 시장 내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음
	진출방안	▶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규 운송루트 개발 및 운송 수단 다변화를 통한 물류 진출전략 수립 필요
품목명 4		
온라인 체험, 온라인 교육	선정사유	▶ 오프라인 중심의 직무 교육에 집중했던 기업들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, 앞으로 온라인 교육 시스템에 대한 관심과 투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.
	시장동향	▶ 일반적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 외에 엔터테인먼트, 마스터 클래스 등 특색 있는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있음.
	경쟁동향	▶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러시아, 우크라이나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, 아직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음.
	진출방안	▶ 특색 있는 콘텐츠에 집중하여 진출 가능성을 타진 ▶ 현재 카자흐스탄은 K-pop, K-drama 같은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서 엔터테인먼트 분야도 유망해 보임.

첨부 3 '24년도 주요 정치·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

▣ 주요 정치 일정

주요 행사	일시(잠정)	비고
SCO(상하이협력기구) 참가국 정상회담	2024년(연중)	
EAEU(유라시아경제연합) 출범 10주년 기념 정상회담	2024년(연중)	

▣ 주요 경제·통상 일정

주요 행사	일시(잠정)
아스타나 국제포럼	2024년 6월
EAEU-이집트 FTA 협정 논의	2024년(연중)
EAEU-인도 FTA 협정 논의	2024년(연중)
EAEU-이스라엘 FTA 협정 논의	2024년(연중)

▣ 유망 전시회 캘린더

주요 행사	일시(잠정)
AgriTek Astana 2024, International Specialized Exhibition of Agriculture	2024.03.12.~14.
Astana Build 2024, Kazakhstan International Building & Interiors Exhibition	2024.03.13.~15.
Securix Kazakhstan 2024, Security and Safety Exhibition	2024.03.13.~15.
ITS 2024, Kazakhstan International Information Technology, Security and Communication Exhibition	2024.03.13.~15.
KITF 2024, Kazakhstan International Tourism Fair	2024.04.24.~26.
KIHE 2024, Kazakhstan International Healthcare Exhibition	2024.05.15.~17.
Central Asia Home Textile 2024, International Exhibition for Home Textiles	2024.05.21.~22.
KADEX 2024, Weapons and Technologies	2024.05.23.~26.
Power expo Astana 2024, Energy, Electrical Equipment and Machine Building Exhibition	2024.05.24.~26.
Central Asia Beauty Expo 2024, International Beauty Industry Exhibition	2024.05.30.~06.01
KazBuild 2024, Kazakhstan International Building & Interiors Exhibition	2024.09.04.~06.
Mining and Metals Central Asia 2024, Central Asian International Mining Exploration & Mining Equipment Exhibition	2024.09.20.~22.

〈작성자〉

연번	작성자	직책	소속	Tel	Email
1	김재우	차장	알마티 무역관	7-727-222-3232	petya@kotra.or.kr

2024
카자흐스탄 진출전략

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
비즈니스 환경 분석
진출전략

kotra

Korea Trade-Investment
Promotion Agency



공공누리

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ISBN : 979-11-402-0841-8 (95320)